

마음이 통하는
VOL.7

길



마음이 통하는
VOL.7

길

“KT노동조합, 한국노총 가입 확정”

조합원 안정 강화
사회적 책임 확대!
대정부 교섭력 확충!



기획특집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새로운 정보통신 세상을 열다

KTTU FOCUS | 2013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노동계 이슈 01 | 방송통신 관련 새 정부조직법 개정안 과연 문제 없나?
노동계 이슈 02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3만개의 화살

임종을 앞둔 아버지가 아들 삼형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아버지는 세 아들에게 화살을 하나씩 나눠주며 부러트리려 보라고 했죠.
 한 개의 화살은 아주 쉽게 부러졌습니다.
 이번에는 세 개의 화살을 모아 부러트리게 했습니다.
 세 개의 화살을 한꺼번에 부러트리기는 힘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삼형제에게,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셋이 합심하면 견뎌낼 수 있다는 가르침을 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릴 적 들었던 이야기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들 각자는 각각 한 개의 화살입니다.
 혼자서는 큰 힘을 발휘하기 힘들죠.
 고난과 역경에 부딪히면 쉽게 꺾일 수도 있는 연약한 개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셋, 열, 백, 그 이상이 모이면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서로 단결하고 협력한다면
 우리의 능력은 더욱 확장될 것입니다.

연약한 하나의 화살이 모여 강력한 세 개의 화살이 되듯
 조합원 하나하나가 모여 KT노동조합을 이룰 때,
 우리는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Contents

발행인 | KT노동조합 위원장 정운모 편집인 | KT노동조합 정책실장 차원규
 발행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06번지 KT노동조합 031-727-2835
 발행일 | 2013년 4월 8일(격월간) 제작 및 디자인 | KT문화재단 02-3414-2053
 인쇄 | 애드그린(주) 02-498-6254



04
KTTU NEWS



08
KTTU FOCUS
2013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12
기획특집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새로운 정보통신 세상을 열다



03 2013
vol.07
04



16
노동계 이슈 01
방송통신 관련 새 정부 조직법 개정안 과연 문제 없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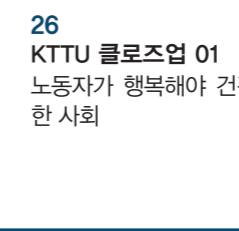
18
노동계 이슈 02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20
글로벌 리포트
우리나라 전월세 폭등과 해외 주거 정책

22
현장24시
Enterprise고객2본부 기업고객2담당 그룹4팀 강주성 조합원

26
KTTU 클로즈업 01
노동자가 행복해야 건강한 사회



28
KTTU 클로즈업 02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한국여성대회 개최



표지
변화와 소통으로 하나되는 노동조합! '2013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30
KTTU 클릭
여성 인권과 인식의 변화

32
그림과 대화하기

KTTU news



커스터머/네트워크부문 현장 KPI 실무협의 마무리

- 비용절감 · 조합원 복지/안전관련 등은 평가항목서 제외



KT노동조합과 회사는 4월 4일(목) 오후 2시 중앙본부 소회의실에서 '2013년 커스터머 및 네트워크 부문 현장 KPI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노사는 지난 회의에서 조합이 제기했던 문제점들을 토대로 ▲시너지 확산 개선도의 비영업부서 판매회선 평가제외 ▲VOC 유형별 평가방법 및 평가제외 항목 구체화 ▲CSI 측정항목 및 방법변경 ▲개통/AS 협업 지원도에서 투자이슈 등 불가피 항목 평가제외 ▲SMB센터 SOHO매출 권역 공동평가 등을 결정했다. 특히 비용절감도에서 조합원 복지, 안전관련 비용과 경직성 예산 등 현장 제어가 불가능한 비용은 KPI 평가항목에서 모두 제외하기로 확정했다.

앞서 KT노동조합과 회사는 3월 27일(수) 오전 10시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2013년도 전사 KPI 관련 첫 노사협의를 진행했었다.

이날 회의는 노동조합 중앙상무집행위원들과 회사 CC담당자 및 각 부문별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조합은 ▲ALL IP기반 성장 ▲Virtual Goods 성장 ▲Global In-Organic ▲VOC 50% 감축 ▲장기성장 견인 ▲책임경영 강화 ▲BIT 완성 등을 골자로 하는 2013년도 KPI설계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예측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한바 있다.

한편, 노동조합은 2013년 현장 KPI가 지표대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촉구하며 실무협의를 마무리했다.

인사보수제도개선협의회 개최

- 호칭, 승진, 인사평가, TM 등 전반에 걸친 제도수정 시급



KT노동조합과 회사는 4월 3일(수) 오후 2시 분당본사 16층 회의실에서 '2013년 제1차 인사보수제도개선협의회'를 개최하고, 현 인사보수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 찾기에 돌입했다.

인사보수제도개선협의회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돌입하기에 앞서, 효율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 3월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회의는 첫 협의회인 만큼, 노사는 현장의 문제점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노동조합, "현장 불신과 사기저하 심각한 수준"

먼저, 노동조합은 2009년 KT-KTF통합 후 4년간 운영해 왔던 인사보수제도에 대한 현장 건의사항을 토대로 ▲호칭제도 ▲승진제도 ▲인사고과 ▲성과급 ▲급식통근비 ▲인사평가시스템 ▲TM제도 ▲야간수당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개선과 재검토를 요구했다. 조합측 한호섭 대표위원은 "지난 4년간 현 인사보수제도를 운용해 본 결과, 현장의 불신과 사기저하가 심각하다"면서 "현실을 고려해 제도변경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시점이 됐다"고 피력했다. 회사는 노동조합의 문제 제기에도 상당 부분 수긍하면서 동시에 ▲현장 영업직 ▲본사지 스텝 ▲상습 부진자 ▲연령간 갈등 등에 대해 거론했다.

계속된 논의 끝에 노사는 차기 회의에서 공통된 문제점을 취합해 안건을 정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고민해 나가기로 하고 마무리했다.

[조합측 위원]

한호섭 사업지원실장(대표위원), 차완규 정책실장, 박상인 정책1국장, 박준용 정책2국장, 전형집 복지국장, 권상기 지원국장(간사)

[회사측 위원]

김상호 인재경영실장(대표위원), 우영수 경영기획담당, 김원경 HR 기획담당, 임종택 경영지원담당, 이성규 노사협력1담당, 윤성욱 상생협력팀장(간사)

임직원 중 · 고등생 자녀 무료 인터넷 교육



KT노동조합은 사교육비 과다 지출로 지친 가계에 '임직원 중·고등생 자녀 무료 이력교육'이라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무료 인터넷 교육

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

- 신청접수 : 2013년 4월 1일(월) ~
- 서비스 이용기간 : 2013년 4월 1일(월) ~ 2014년 3월 30일(일)
- 서비스 이용대상
 - 중학생 : 중학교 1 · 2 · 3학년 재학생, 예비중(초등 6학년)도 중학생에 포함
 - 고등학생 : 고등학교 1 · 2 · 3학년 재학생, 예비고(중등 3학년), 재수생도 고등학생에 포함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개최

- 2012년 결산 및 2013년 사업계획 보고, 신설법인 기금분할 등 의결



KT노동조합과 회사는 3월 29일(금) 오전 11시 분당 본사 16층 회의실에서 2013년 첫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201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산 보고 ▲2013년 예산서 및 사업계획 의결 ▲신설법인에 대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분할 의결 등으로 진행했다.

먼저, 회사는 지난해 목적사업비 집행내역과 자산내역을 보고했으며, 조합은 기금운영상황,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면밀히 검토했다.

또한 KT에스테이트, KT미디어허브, KTSat 등 신설법인 사내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한 기금분할 계획을 의결했다. 노사는 신설법인의 기금분할 요청 시 전출자 수를 기준으로 분할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노사는 올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안정적 기금운용 정책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기로 협의했다.

2013 사랑나눔기금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 조합원 및 임직원 참여율 71%... 투명성 높이고, 사회공헌활동 강화



2013년 사랑나눔기금 중앙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노동조합과 회사는 3월 26일(화) 오전 11시 분당본사에서 '2013년도 사랑나눔기금 중앙운영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활동내역 및 올해계획을 보고한 뒤, ▲KT사랑나눔기금 중앙운영위원회 위원변경 ▲운영규약 개정 ▲사랑의 봉사단 가이드라인 개정 등 3가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기금 집행률 92.5%

노사 동수로 구성된 KT사랑나눔기금 중앙운영위원회는 먼저 지난해 임직원기금, 노사UCC, 매칭그랜트 등 사랑나눔기금 결산 내역을 보고한 뒤, 올해 기금모금 참여율 및 참여인원 등 캠페인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해 사랑나눔기금 임직원 참여율은 71%였으며 임직원 모금액은 각 모금부서 봉사팀에 제공되어 봉사활동 비용으로 쓰였다. 매칭그랜트를 포함한 기금 집행률은 92.5%에 달 했다.

또 올해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실시한 가입캠페인 결과, 올해 참여율도 71% (23,147명)에 달했다.

올해 UCC 회원사 등과 사회공헌활동강화

이와 함께 이날 중앙위원들은 KT사회공헌활동을 중심으로 한 '2013년 노사 UCC 및 매칭 그랜트 집행계획'을 공유했다. 올해 노사는 UCC를 통한 소외계층 봉사활동 및 녹색지킴이 활동을 강화하고, 조합의 상급단체 가입에 따른 활동확대도 고려하고 있다.

KT노동조합, 고등법원 선거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심 승소

지난 3월 6일 일부 불순세력(민주동지회, 이하 민동회)에 의해 제기되었던 선거효력정지가처분소송 고등법원 항고심이 재차 기각되었다.

이는 2011년 말 실시했던 11대 위원장 선거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소송으로 선거 직후 가처분 소송에서도 모두 기각되었음에도 2년이 다 돼가는 이 시점에도 의미 없는 법적 분쟁을 계속 일으켜 법원에서조차도 가처분의 무의미함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이번 고등법원 가처분 결정문뿐 아니라 지난 지방법원 본안소송의 결정문에서도 법원은 조목조목 민동회 주장의 이유 없음에 관하여 결정하였다.

그럼에도 지속해서 의미 없는 법적 분쟁을 제기하는 민동회의 불순한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처분 1, 2심, 본안소송 1심까지 같은 주장으로 일관하여 여러 판사로부터 유사한 내용의 결정문을 받은 민동회는 얼마 전 본안소송 1심 결정에도 불복하고 또다시 항고를 하여 이제 다시 고등법원 2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물론 민동회의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대법원까지 갈 것이 불 보듯 뻔하며, 이들의 의미 없는 법적 분쟁 때문에 조합원들의 혈세인 조합비만 낭비되고 있을 뿐이다.

KT노동조합은 반드시 이에 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3·8 세계 여성의 날 맞아 전국 여성국장 워크숍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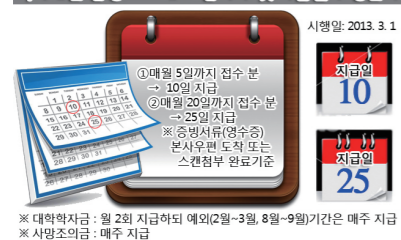


KT노동조합은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3월 7일(목)~ 8일(금)까지 전국 여성국장 워크숍을 개최했다.

중앙본부 박호근 여성국장은 “올해 세계여성의 날 슬로건은 ‘2013 여성, 빈곤과 폭력 없는 세상으로’”라고 소개하며, 3·8 세계 여성의 날 유래와 올해 기조의 의미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 “KT 내에서 여성비율은 전체의 20%에 못 미치지만, 인원수만 해도 4천명이 넘고, 신입사원 여성비율도 점차 늘고 추세”라며, “노동조합 여성국은 여성 조합원들의 고충을 더욱 세심하게 경청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더불어 KT안에서 지위 향상을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비용 지급주기 개선

복지예산 집행 프로세스 합리화 및 지급일자 명문화



KT노동조합은 복지예산 집행에서 이원화되었던 프로세스를 합리화하고 지급일자를 명문화해 지급시기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복지

지비용 지급주기를 개선하여 시행한다.

- 내용 : 지급일자를 매월 10일, 25일 지급
 - 매월 5일까지 접수 분 : 10일 지급
 - 매월 20일까지 접수 분 : 25일 지급
- ※ 증빙서류(영수증) 본사우편 도착 또는 스캔첨부 완료기준
- 특정시기별 지급내용
 - 대학학자금 : 월 2회 지급하되 예외(2월~3월, 8월~9월)기간은 매주 지급
 - 사망조의금 : 매주 지급
- 시행일 : 2013년 3월 1일(금)
- ※ 세부사항은 자료실 「문서/정책」을 참고.



KT노동조합은 2월 18일(월)부터 22일(금)까지 5일간 '2012 회계연도 하반기 회계감사 총평 연도 하반기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22일 오후 4시 중앙본부 회의실에서 총평했다.

임태복 회계감사위원회 대표위원은 “수감기간 동안 지출결의서와 각종대장, 예금통장 등을 자세히 살피며 조합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조합비가 예산에 맞게 투명하게 집행된 것은 물론, 장표 종류와 수감자료, 제반서류 행정처리도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었다”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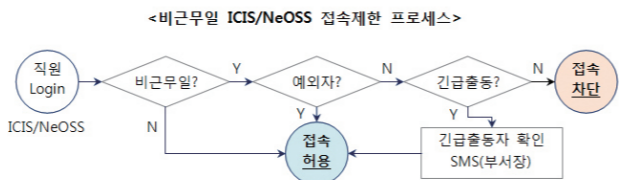
이어 “3월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예산집행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고 있는 만큼, 11대 집행부는 앞으로도 투명하고 검소한 예산집행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정운모 위원장은 “2만 5천 조합원을 대표해 지난 5일간 밤낮없이 회계감사에 임해주신 임태복 대표위원을 포함한 7분의 회계감사위원 모두 고생 많으셨다”고 인사한 뒤 “지적된 사항들은 빠르게 조치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비근무일 일부 시스템 접속제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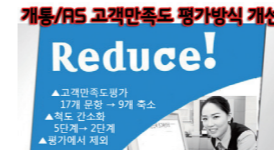
KT노동조합 11대 집행부 공약사항 중 무급휴일근무를 철저히 근절하고자 회사와 협의를 통해 비근무일에는 일부 시스템의 접속을 제한한다.

- 대상 시스템 : ICIS, NeOSS
 - 추후 문서시스템 등 대상시스템 확대 검토
 - 예외자 : ICIS/NeOSS 접속권한이 있는 지사장/센터장 이상 직책자
- 시행일 : 2013년 2월 25일(월) ~
- 비 근무일 범위 : 연차휴가일, 휴일근무 미 승인 상태의 휴일/휴무일



※ 자세한 내용은 자료실 「문서/정책」을 참고.

2013년 개통/AS 고객만족도 평가방식 개선



KT노동조합은 지난 2월 19일(화) '2013년 개통/AS 고객만족도 평가방식 개선'을 회사에 요구하고 ▲고객만족도평가 총 17개 문항 → 9개 축소 ▲5단계 척도 → 2

단계 간소화 ▲전사 KPI 확정 전까지 평가에서 제외할 것 등을 협의했다.

애초 노동조합은 현행 고객만족도 평가방식이 17문항 중 5개 문항 무작위 조사로 시행되고 있으나, 17개 조사항목 자체가 과다해 개통/AS 처리지연 및 부가업무(MOT, VOC, 개인정보 동의율)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지적해 왔다.

따라서 17개 조사항목을 성격별로 묶어 9개 항목으로 줄이고, 이를 2013년 전사 KPI 확정 전까지 평가에서 제외할 것을 결정했다. 한편, 간소화된 개통/AS 고객만족도 평가방식은 오는 2월 25일(월)부터 적용한다.

2013년 개통/AS 고객만족도 평가방식

구분	기존	변경
항목	방문직전 ~ 수리완료 전 과정(17문항)	방문직전 ~ 수리완료 전 과정(9문항)
척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5단계)	준수, 미준수 (2단계)
방식	무작위 로테이션식 1고객당 5개문항 랜덤조사(17문항)	무작위 로테이션식 1고객당 5개문항 랜덤조사(9문항)

2013 조직개선 단행, 스텝슬림화와 현장중심 - 정운모 위원장 “신속한 현장 안정화에 주력해야”

“스텝슬림화, 현장중심” 조직개선 단행



2013년 2월 19일자로 조직개선이 단행됐다. 조직개선의 기본방향은 ▲유무선조직 통합에 따른 조직/인력 운영 비효율성 제거 ▲BMO/PMO 사업수행체계 공고화 ▲그룹 경영체계 강화 ▲CIO기능 전문성 강화 ▲BIT 조기정착을 통한 혁신 내재화 및 실행력 강화

BMO/PMO(Business Management Office & Project Management Office) 사업수행체계 공고화 ▲그룹 경영체계 강화 ▲CIO기능 전문성 강화 ▲BIT 조기정착을 통한 혁신 내재화 및 실행력 강화에 목적이 있다.

사업부서/지역본부 스텝 슬림화 사업부서/지역본부 스텝 인원수를 줄여 현장으로 배치하고, 지사와 사업지원센터 기능별 전문화를 위한 역할을 재정립했다. 또 커스터머부문과 G&E부문 스텝부서를 축소해 신설된 그룹윤리경영 부문과 T&C부문, SI부문 등 신사업 분야에 재배치한다. 지사, 사업지원센터 기능별 전문화 위한 역할 재정립 - 지사(236개) : 고객접점 서비스(MP-개통/AS+MOT, HP-영업) - 사업지원센터(38개) : 가입자 네트워크 인프라 운영(선로, 액세스장비, 전원 등)

업무 효율성을 위해 현재 유선상품(지사)과 기업상품(사업지원센터) 개통/AS 업무를 따로 운영하던 것을 지사로 일원화했다.

또한 선로(지사)와 장비/전원(사업지원센터) 운영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던 것을 사업지원센터로 일원화하여 가입자 네트워크 운영업무를 도맡게 했다.

이 밖에 SMB센터는 125개에서 78개로 통합하고 해당기관 지사장을 상무보로 승격해 고객 통합관리를 강화했다.

따라서 지사의 특별기동팀 인력은 수평이동하여 70%는 사업지원센터로 옮겨 현 지사의 전람,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나머지 30%는 IT, 영업인력으로 보강한다.

한편, 물류센터의 경우 현행 6개 팀을 유지하되 거점창고 70개를 두고 물류보관창고 업무를 KT링커스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리했다. 구조조정 사전포석설 등 루머 사실무근

KT노동조합은 이번 조직개선을 염두에 두고 2월초부터 회사 측에 ▲스텝부서를 현장중심으로 개선할 것 ▲중첩되는 업무를 일원화할 것 ▲인사의 경우 현장 안정화를 위해 속전속결로 단행할 것 등을 요구해 왔다. 이와 함께 광역지사 전환 등 그 동안 현장을 떠돌던 루머를 잠식시키기 위해 중앙상집회의, 산하조직대표자회의 등을 연달아 개최하며 진행상황을 공유한 바 있다.

이번 조직개선과 관련하여, 정운모 위원장은 “현장중심의 조직체계가 강화될길 기대한다”며, “일각에서 퍼뜨리는 구조조정 사전포석설 등은 전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일체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못박았다. 또한, “이제 조합간부들은 현장의 빠른 안정화를 위해 각별히 신경쓸 것”을 당부했다. ※ 조직개선과 관련된 KBN 뉴스특보 내용은 KBN&Talk 사이트 (<http://kbn.kt.com>)에서 기업보안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사내망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3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96.2% 찬성...한국노총 가입 확정”

정윤모 의장 “KT가족과 노동조합, 일터 지키는 기폭제가 될 것”

13개 KT그룹 노동조합도 함께 할 것을 결의!



변화 기폭제

그룹사 포함, 3만 여 조합원 이끌고 19년 만에 한총행... 노동운동사 새로 썼다

KT노동조합이 지난 21~22일에 개최된 정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96.2%의 찬성으로 한국노총 가입 안건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로써 KT노동조합은 지난 2009년 7월 민주노총 탈퇴 후 3년8개월 만에 상급단체에 가입하게 됐다. 21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전국대의원대회는 샌드 아트와 노래패 ‘우리나라’의 노동가요공연 식전행사로 뜨겁게 막이 올랐다. 이어 11시에 시작된 본대회 1부 행사에는 정윤모 위원장, 황성관 사무총장을 비롯하여 조합간부 및 대의원은 물론 각계각층의 내빈 등 총 500여 명이 참석, 그 어느 때보다 성황을 이뤘다. 초대 위원장인 최상용 위원장을 비롯한 전직 위원장들과 KT 그룹사 위원장, UCC회원사 노동조합 위원장, LGT·SKT노동조합 위원장, 이석재 회장 및 서유열 사장 등 경영진도 함께 했다.

정윤모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오늘 우리는 2013년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뿐 아니라 상급단체 가입안에 대해서도 심의·의결을 해야 한다”고 밝히며, “한국노총 가입을 추진하게 된 것은, 노동운동을 독자적으로 추진하는데 적지 않은 한계와 과제를 느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 위원장은 “민주노총 탈퇴 후 우리는 일부 언론과 결탁한 좌파세력으로부터 끊임 없는 모략과 음해를 받았고, 그들은 우리를 단결권도 없는 허수아비 조직이라고 온갖 유언비어를 퍼뜨리며, 흔들여 뒀다”며, 한국노총 가입을 통해 ▲KT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 확대 ▲좌파세력으로부터 KT노동조합·KT사수 및 조합원 고용안정 강화 ▲방송통신미디어 규제에 맞서 대정부 교섭력 확충 등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본대회 2부...한국노총 가입 등 3개 안건 통과” 조합원 고용안정 강화, 대정부 교섭력 확충 등에 박차

뒤 이어 진행된 2부 본대회에서는 전국대의원 317명 중 317명이 참석하여 총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2012년도 사업보고 및 예산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2013년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 편성 승인에 관한 사항은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 ▲한국노총 가입 건은 총대의원 317명 중 316명 투표, 찬성 304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96.2%의 압도적 지지로 가결되었다.

정윤모 위원장은 “대의원 동지들의 뜨거운 결의로 KT노동조합의 위상과 조합원들의 긍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격려하며, “19년만에 한국노총행을 결정한 역사적인 오늘, 여러분의 지지와 결단을 모아 조합원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조합,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대의원들은 가입 시기와 절차를 위원장에게 위임했고, 투표결과를 토대로 정 위원장은 4월초 상급단체에 가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KT텔레캅, KT링커스를 포함한 13개 KT그





렵노조협의회 노동조합도 오는 29일 일제히 한국노총에 가입할 예정이다. KT노동조합은 2만5000여명과 KT그룹사의 5000여명을 포함, 총 3만여명의 조합원을 이끌고 한총에 가입함으로써 한국 노동역사를 새로 쓰게 됐다. KT노동조합 2013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는 3월 21일(목) 상정된 3개의 안건을 모두 심의·의결하고, 결의문 채택을 끝으로 오후 4시 5분 폐회했다. 한편, 이번 전국대의원대회에서는 총 6개 지부와 6명의 우수 지부, 우수 조합원 표창이 있었다. 우수 지부와 우수 조합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우수 지부(총 6개 지부)
 - 강북지방본부 동두천지부
 - 강남지방본부 용인지부
 - 대구지방본부 포항지부
 - 본사지방본부 종합기술원지부
 - 전남지방본부 해남지부
 - 충남지방본부 당진지부
- 우수 조합원(총 6명)
 - 서부지방본부 서부고객본부지부 계원 조합원
 - 부산지방본부 남부산지부 구태형 조합원
 - 전북지방본부 전주지부 송상의 조합원
 - 충북지방본부 제천지부 최종호 조합원
 - 강원지방본부 강릉사업지원센터지부 우창기 조합원
 - 제주지방본부 네트워크지부 김형민 조합원

KT노동조합은 지난 세월, 수 많은 명과 암을 경험했다. ‘공기업에서 민영화’가 되는 파고를 넘었고, ‘사상 처음으로 명동성당 내의 공권력 탄압’이라는 억압도 견뎌냈으며, 15년 간 동고동락하며 노동운동의 전성기를 함께 했던 민주노총과의 대립과 갈등 역시 뼈 아프게 겪었다. 이제 그 파란만장한 역사를 넘어 상급단체인 한국노총 가입에 도달하게 됐다. 올해 출범한 새 정부와 한국노총은 새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만들고 합리적 노동운동 정착을 위해, 긴밀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동조합은 이러한 한국노총과 연대를 통해 신정부의 ICT 정책을 KT에 유리하도록 다양한 채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회사와의 교섭력 강화로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고, 조합원의 안정적인 일자리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노총 역시, KT조합원의 고용과 대정부 교섭력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KT노동조합의 한국노총 가입은, 소속감을 통해 조합원의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KT노동조합의 입지와 발전을 확장시키는 물론 노동운동의 새로운 발전과 통합에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I N T E R V I E W

이른 새벽부터 전국 각지에서 달려온 대의원들은 지리산의 정기만큼이나 맑은 정신과 사명감으로 이번 전국대의원대회에 임했다. 새로운 결의의 장으로 거듭난 올해 대의원대회를 마친 소감을 현장 대의원들의 목소리로 담았다.

“앞으로도 꾸준한 현장 중심의 집행부가 되었으면...”

호남네트워크 운용단
집중운용센터 전원관리팀
류재수 대의원



“한국노총 가입안에 찬성하게 된 배경은 독자노조보다 정치적 입지가 안정된 한국노총에 가입하는 것이 노동조합이나 KT에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이슈로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 정부가 한국노총을 노동계 파트너로 공식 인정했으니 한국노총과의 연대로 우리도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에 대의원들이 현 집행부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며 힘을 실어주는 대의원대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대의원들보다 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이번 대회는 지지를 받는 만큼 더욱 노력해주시기를 바라는 기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도 많이 애써주시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현장을 직접 방문해 조합원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었으면 합니다. 우리 조합원들은 전국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가시권에서 멀어질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장은 우리 조합원들의 일터이자 삶입니다. 시간의 대부분을 현장에서 보내는 만큼 집행부가 지금보다 더 많은 현장 정서를 몸으로 겪으면서 결과를 일구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신임 돋보여... 더욱 효율적인 ‘토론의 장’ 부각

“이번 대의원대회는 어느 때보다 집행부가 용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집행부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임금협상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반영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전대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노총 가입’ 안건이었는데요, 우선 전체 노동자의 단결과 사회적 연대활동을 위해, 기업별 노동조합의 틀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상급단체 가입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한국노총은 그 동안 중장기적 노사관계 안정과 사회적 대화 발전을 주장했으니, 경제민주화와 노동시장 개혁 및 사회통합을 이루는 큰 연대가 분명 KT노동조합의 입지를 넓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무엇보다 현 집행부와 대의원들은 라인업이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점이 참 뿌듯했는데요, 덕분에 결집력을 다지는 분위기가 돋보이는 대의원 대회였습니다. 향후에도 현 집행부가 대의원들이 믿어주는 만큼 빅이슈에 대해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조합원들의 입장에서 집행하고 결과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도권 강남고객본부 성남지사
Mass 고객부 Mass 고객1팀
김병수 대의원





한국전기통신공사 현판식 (1981.12)



초창기 114 안내업무 전산화 모습



한국전기통신공사 노동조합 전국대의원대회(1990.05)



ESS 기계실 모습 및 국제자동전화(ISD) 개통 및 무선호 출서비스의 도입 초창기에 사용된 호출기들



무궁화위성 1호 발사 모습(1995.08) 및 무궁화위성 2호 발사 중계 모습(1996)



초기 한국통신 홈페이지

기획특집 연재 ② '우리나라 정보통신 발달사'는 지난호에 이어 연재됩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새로운 정보통신 세상을 열다



1980년대, 정보통신시대의 개막

우리나라 통신 산업은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된다. 1981년 한국전기통신공사(KT)의 설립이 그 신호탄이었다. 이전까지는 통신사업을 정부가 직접 경영하여 왔으나 공사체제로 조직과 경영체계를 개편하여 공기업으로서 자율성을 확보하였다. 한국전기통신공사의 출범과 함께 통신 산업 발전에 본격적인 가속도가 붙었다. 과거 국가에서 전화기를 보급하던 것에서 개인이 직접 전화기를 구입할 수 있는 자급제가 시작된 것도 이때부터다. 교환원 없이 상대방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자동식 전화기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 생활에서는 이전의 검은색 전화기에서 벗어나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의 전화기가 등장하면서 단순한 통화의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실내공간을 장식할 수 있는 전화기 패션시대를 맞게 되었다. 통신 분야의 변화는 서비스 분야뿐 아니라 기술 분야에서도

이어졌다. 1986년에는 'TDX'라 불리는 한국형 디지털 전자교환기가 개발되었다. 읍면 단위로 설정된 통화권이 지금처럼 시군 단위로 광역화되기 시작했다. 1987년 7월 1일, 전국 전화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그동안 만성적인 전화 설치 적체 문제도 해소되었다. 이날부터 이웃면으로 통화할 때도 전화국의 교환원을 통해야 했던 과거 수동식 전화는 역사의 무대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통신이 문화를 만들던 1990년대

“... 떨리는 수화기를 들고 너를 사랑해 / 눈물을 흘리며 말해도 아무 대답하지 않고 / 야윈 두 손에 외로운 동전 두 개뿐...”

- 공일오비(015B)의 노래, '팅빈 거리에서' (1990년) 중

최근 한 설문조사에서 1990년대를 대표하는 문화를 묻는 질

문에 응답자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47%가 공중전화, 삐삐, 시티폰 같은 통신문화를 꼽았다. 1990년대를 추억하고 이야기 할 때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그 시절의 통신 산업을 떠올린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통신 분야의 발전은 일상에서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

특히 공중전화는 많은 가수들이 관련된 노래를 불러 대중가요의 단골소재로 등장했다. 소방차의 '통화중'(1988), 김혜림의 'DDD'(1989), 임중환의 '그냥 걸었어'(1994) 등은 공중전화와 관련된 대표적인 히트곡으로 그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노래들이다. 당시 많은 이들에게 공중전화는 20원으로 통화를 할 수 있는 전화기 이상의 의미였다. 휴대폰은 커녕, 삐삐도 없던 시절 공중전화 부스는 삶의 여러 순간을 함께한 공간이었다. 고향을 떠난 도시 노동자와 대학생들은 자신의 안부를 전하기 위해, 젊은이들은 몰래 사랑을 속삭이기 위해 밤늦게 동전을 챙겨 공중전화로 향했다. 동네 슈퍼 같은 곳은 공중전화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매상이 달라졌다. 그래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에겐 공중전화를 갖다 놓는 것이 큰 '민원'이었다. 초창기 전화국에서는 장소와 고객수를 파악한 다음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공중전화를 설치해주었기 때문이다.

1986년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등장한 MS카드식 공중전화는 동전이 필요 없다는 편리함 때문에 많은 사랑을 받았다. 2천 원 권부터 고액인 1만원 권까지 다양한 공중전화카드를 뒷면에 사진이나 그림을 실어 공익광고는 물론 기념, 홍보용까지

많은 용도로 활용되었다. 당시에 공중전화카드는 꽤 센스 있는 선물이었으며 각종 공중전화카드 수집을 취미로 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삐삐의 등장 이후 공중전화의 인기는 더욱 높아져갔다. 변화기의 공중전화 부스 앞은 언제나 전화를 걸려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었다. 공중전화 앞에서 자신의 차례가 오기를 고대하면서, 사람들은 앞사람의 사적인 통화내용을 자연스럽게 엿들었다. 그러면서 때로는 웃기도 하고, 너무 오래 통화를 할 경우에는 욕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 말다툼으로 이어지거나 심지어는 살인사건까지 벌어지기도 해 간혹 뉴스에 나오기도 했다.

아날로그 감성을 전하던 삐삐와 시티폰

1990년대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삐삐다. 휴대용 무선호출기 또는 그 서비스를 일컫는 삐삐는 1983년 처음 등장했을 때 기업의 사업용 통신수단으로 이용되었지만, 1992년 사용지역이 전국으로 광역화되면서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당시엔 이동 중에도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통신 기기로 여겨졌다. '7942(친구사이)', '8255(빨리 와)', '1010235(열렬히 사모)' 등의 삐삐용 암호는 지금은 촌스러울지 몰라도 그 시절 신세대 사이에서는 서로의 친밀감과 의사를 표현하는 확실한 소통방식이었다. 삐삐의 음성 메시지 서비스는 급한 용무를 전달하는 기능 외에도 직접 표현하기 어려웠던 얘기들을 전하는 메시지 노릇을 톡톡히 했다. 마치 편지처럼 수화기에 대고 목소

한국통신프리텔의 @016 브랜드 출시 기념식(1997.05)



한국통신 21세기 비전 선포식(1999.10)



한국통신-한솔엠닷컴 전략적 인수(2000.06) 및 대한민국 이동통신 'KT' 탄생



2002 한·일월드컵 정보통신분야 공식파트너 지정(2000.10)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KT'로 신규 C선포(2001.12)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브랜드인 메가패스 1000만 돌파 기념식(2002.11)





KTF 잠실 롯데캐슬프라자로 이전(2005.12)

개성공업지구 KT 남북통신 개통식 (2005.12)

창립 25주년 기념식에서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Wonderful Life Partner, KT' 선포(2006.12)

IT서포터즈 발대식에서 IT 전문기술 서비스 기부 (2007.02)

KT WiBro Alliance 발표회(2008.09)

휴고객 기반의 서비스 대표 브랜드 'QOOK' 출시(2009.04)

리로 직접 전하는 음성메시지는 때론 수줍은 고백으로, 때론 진심어린 말로 상대방의 마음과 소통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었다. 휴대폰 음원서비스를 이용하는 요즘과 달리 당시 삐삐의 '인사말'은 본인이 직접 녹음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삐삐는 자신의 목소리로 인사말을 남기거나 노래를 직접 녹음하던 아날로그 감성이 묻어있는 통신 서비스였다.

한때 시절을 풍미하던 삐삐도 현재는 이용자가 1만8000명 수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절반가량은 기계에 장착된 것으로 실제 사용하는 사람은 채 1만 명이 되지 않는다. 무선 호출 기능이 개인 간 통신보다는 사물지능통신(M2M)으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과거에 사람 사이 정서를 전달하던 삐삐는 지금은 골프장 카트나 버스 등에 부착돼 서로의 거리를 유지하는 기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M2M 서비스는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휴대용 공중전화'와 같은 개념의 시티폰은 삐삐와 휴대폰 사이에 잠시 스쳐갔던 이동통신으로 전화를 걸 수만 있고 받을 수는 없었다. 삐삐를 확인하고 공중전화를 찾아 줄을 서야하는 삐삐 사용자들에게는 매력적인 통신이었다. 하지만 기지국이 설치된 공중전화 근처가 아니면 수신율이 떨어진다는 단점 등으로 인해 90년대 후반에 잠시 주목을 끌다가 휴대폰에게 자리를 양보했다.

본격적인 모바일 통신 시대로의 진입

현재의 휴대폰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차량전화 서비스는 1984년 시작되었다. 당시에는 설비비, 채권, 전화기, 허가신

청료 등 가입에만 총 400만 원 이상이 드는 고가의 서비스였다. 당시 포니2 자동차 가격이 400만원 정도였으니 차량전화 소유는 곧 부의 상징이었다. 차량전화 서비스가 휴대전화 서비스로 이동하게 된 것은 1988년부터다. 하지만 여전히 휴대전화는 소수의 사람들만 이용하였다.

1995년 우리나라가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의 이동통신 기술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면서 단말기와 통신료 문제가 한꺼번에 풀렸다. 1996년에는 휴대폰의 대중화가 급속도로 이뤄지기 시작했다.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에 이어 KTF 등 PCS 사업자 3곳이 새로 시장에 진입하면서 비로소 진정한 이동통신의 대중화가 실현된 것이다. PCS 단말기는 휴대에 걸맞을 만큼 작아졌고 통화료도 저렴해 많은 인기를 모았다. PCS폰의 등장과 함께 1997년을 정점으로 삐삐와 공중전화 시대는 저물어갔다. 반면 1996년 319만명 수준이었던 휴대전화 가입자는 1년에 두 배씩 늘어나 1998년 1,000만 명, 2006년에는 4,000만 명을 돌파해 지금은 우리나라 인구수보다 더 많은 가입자를 기록하고 있다.

정보화 시대의 등장과 초고속 인터넷의 대중화

1994년 12월에는 체신부가 정보통신부로 개편되면서 전기통신산업은 정보통신 산업으로 그 개념을 전환하여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등 새로운 변화에 주력하였다. 1995년 8월에는 국내 최초의 통신방송복합위성인 무궁화호가 발사되어 정보 통신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또 1994년 한국통신(KT)의 코넷(KORNET) 등의 등

장과 함께 국내에서 인터넷 서비스 상용화가 시작되었다. 인터넷 상용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일반 가입자들의 수가 점차 증가하였고 사람들 사이에서 멀티미디어 서비스와 정보화 사회의 전반에 대한 관심이 더욱 확대되었다.

이후고 1999년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인 ADSL이 개시되면서 인터넷은 대중 속으로 확대되어 일상에 자리매김했다. 1994년 말의 13만여 명에 불과하던 인터넷 사용자는 매년 2배 이상 증가하여 1999년 말에 1,000만 명을 넘어섰다.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역시 2002년에 1,000만 명을 돌파했는데 당시 우리나라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미국의 4배, 일본의 8배 등으로 해외 선진국과도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2006년에는 정지 및 시속 60km 이상 이동 중에도 자유롭게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와이브로(WiBro)를 세계 최초로 상용서비스를 개시해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IT 선두주자가 되었다.

통신 서비스의 융합과 스마트폰 혁명

2007년, KT(KTF)는 세계 최초로 W-CDMA보다 5배 이상 빠른 속도로 통신할 수 있는 고속하향패킷접속(HSDPA) 전국 서비스 개시에 성공한다. 이로써 1896년 우리나라에 자석식 전화가 처음 도입된 이후 110년 동안 지속된 음성통화시대가 막을 내리고, 영상통화시대가 열렸다. 과거 SF소설에서 등장하던 이동 중 영상통화가 현실이 된 것이다. 그리고 같은 해 초고속 광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디지털 방송은 물론 다양한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하는 IPTV가 상용화되면

서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2009년 KT의 아이폰(iPhone) 도입은 본격적인 스마트폰 시대를 열어 우리의 생활 패턴을 변화시켰다. 이후 스마트폰 대중화가 이루어지면서 언제 어디서나 무선인터넷에 접속해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었고, 기존 이동통신은 데이터 중심의 통신으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로 인해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이 확산됐다.

우리나라 정보 통신 산업은 유무선 통합과 융합의 컨버전스를 통한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로 현재도 계속 진화 중이다. 짧은 기간 안에 이룩한 우리의 정보 통신 발전은 그 자체로 IT 혁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정보통신 발전의 한 가운데에는 KT가 있었다. 정보통신 산업의 비상과 선진화의 밑바탕에는 1981년 KT 출범이후, 1가구 1전화시대 개막과 전자교환기의 자립화 등 KT의 지속적인 혁신과 경쟁력 확보의 노력이 함께 했었다.

KT가 걸어온 길이 바로 우리나라 통신과 IT의 역사인 것이다.



KTF와 합병, 통합 KT 출범기념 현수막이 걸린 본사 건물(2009.06)

제2 창업을 선도할 새로운 경영방향인 올레(olleh) 경영 발표 (2009.07)

국내 최초로 분당사옥에 스마트워킹센터 개소(2010.08)

olleh 1호 위성 발사(2010.12)

세계 최초 와이브로 4G 전국망 상용화(2011.03)

통합 브랜드 '올레' 론칭(2011.01)



방송통신 관련, 새 정부조직법 개정안 과연 문제 없나?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극한대치 끝에 지난 3월 17일 최종 타결됐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1일, 1월30일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46일 만이다. 이로서 박근혜 정부의 상징으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공식 출범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일부 방송기능을 미래부로 이관하는 원안을 고수하고, 민주당은 방송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이날 합의한 개정안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만든 원안이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수용됐다. '공룡'조직 미래부의 방송통신 관련 기능이 어떻게 조정되었는지 이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국(SO) 관할권은 미래부로 이관된다. 다만 미래부 장관이 SO나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 사업 등을 허가·재허가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때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다. 비보도 등 방송의 공정성·공익성과 관련 없는 콘텐츠 사업자(PP)와 인터넷(IP)TV 관련 부문도 당초 원안대로 미래부에 넘어간다. 다만 IPTV 사업자는 직접 사용 채널 및 보도 채널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관련법을 19대 국회 임기 중에는 개정하지 않도록 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진흥 정책도 미래부가 종합 조정하고, 아울러 전파와 주파수 관련 사항도 미래부 장관이 관할한다. 다만 주파수 관리의 경우 통신용은 미래부가, 방송용은 현행대로 방통위가 하도록 했으며 신규 및 회수된 주파수의 재분배는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심의하기로 했다. 이로서 미래부는 정보기술 및 방송 통신 융합 기능을 총괄하는 거대 부처가 됐다.

여야의 오랜 대치 끝에 나온 절충안이지만 방송 통신과 관련된 정책 권한을 대부분 미래부가 맡은 것에 대한 논쟁은 여전하다. 방송 광고 정책, 8000억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권, 방송 관련 법령 입법권도 모두 미래부로 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맡았던 방송 정책을 대통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장관이 전권을 쥐 한 부처에 귀속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방송의 공공성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공공성과 공정성을 보안해야

방송통신 관련 정책과 진흥이 미래부 산하로 이관되어 방송 정책을 견제 받지 않는 독립제 장관이 수행한다는 것은 개편이 아니라 방송 정책권 대부분을 독립제 부처에 되돌려 주는 것이기에 과거 회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언론학자들은 정부와 여당이 성장 논리를 내세우는 명분에 대해서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꼬리가 개를 흔드는 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공영성과 공정성은 제쳐두고 방송에서 성장 동력을 찾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됐다는 말이다. 방송통신 분야의 규제와 정책 진흥이 분리되면 미래부의 독립제 장관이 각종 방송통신 관련 정책 현안과 법안(법률, 시행령, 고시)을 만들고 진흥에 해당하는 지원까지 담당하



로 사실상 새로운 방통위는 단순히 집행을 감독하는 기구로 전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여당과 야당의 합의제 기구를 통한 논의 과정이 사라지게 됨을 의미한다. 방송 정책권을 어느 부처가 가질 것이냐는 지난 30년간 논쟁과 사회적 합의의 결과로 결정됐다. 방송 정책 관련 부처가 합의제로 운영되도록 이뤄진 것은 공공성 유지를 위해 견제와 균형이 꼭 필요하다는 논리에서였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 중 야당 추천 인사 2명이 포함돼 어느 정도의 견제 원리가 작동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방통위 기능 축소가 아니라 본래의 취지를 되살려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당에서는 보도채널은 계속 방통위가 규제할 것이라지만, 100개가 넘는 방송 채널 중 보도채널인 10여개만 남긴다면 방통위는 껍데기가 된다는 지적도 있다. 보도채널이나 보도 채널이 아니냐를 떠나 모든 방송 콘텐츠는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이를 독립제 부처에서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방송에 대한 규제와 통제 논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도 미지수

또한 이번 개정안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바로 업무 효율성이다. 방통위와 같은 합의제 기구로는 효율적인 방송 지원과 육성이 어렵다며 미래부로 업무를 이관하려 한 것인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 사업자의 재허가는 방통위 사전 동의를 받고, 주파수 문제는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데다 '방송공정성 특위'까지 두게 해 삼중의 견제를 받게 됐다는 평가다. 한 방통위 관계자가 "오히려 절차적으로 옥상옥(屋上屋)이 돼 신속한 진흥이 더 어려워졌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효율성 측면에서도 위성과 케이블 등의 뉴미디어는 미래부

로 가고 지상파와 종편 등은 방통위에 있게 되면 매체와 사업자 간의 갈등이 정부 부처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주파수를 방송용과 통신용으로 구분해 방송용은 방통위가, 통신용은 미래부가 관리하고, 신규·회수 주파수는 국무총리실에 신설되는 주파수심의위원회에 분배·재배치 권한을 부여하기로 결론이 난 것에 대해 일부 주파수 전문가들은 방송, 통신용으로 주파수를 구분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면서 새로운 조직법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미디어 정책은 사회, 정치적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슈인 만큼 현행 합의제 독립 기구는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방송통신 관련 정부 조직 형태를 합의제로 개편한 목적은 언론과 표현 영역에 대한 자유와 정치적 독립성 유지 때문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현 정부의 주장처럼 방송 통신 융합 환경이 중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바로 방송통신위원회다. 지난 5년간 방통위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등 시행착오를 거쳤다. 새 정부는 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성찰 없이 더 큰 공룡 부처를 만들어 업무만을 이관하는 것은 능사가 아님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주요 업무

- 기초과학 연구개발(R&D)
- 국가 R&D 예산 배분 및 조정
- 미래 및 우주기술 개발
- 정보통신기술(CT) 산업 진흥
- 방송통신 융합 및 진흥
- SO/위성방송/IPTV 등 뉴미디어 정책
- 디지털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정책
- 전파정책 및 통신용 주파수 관리

국민연금의 허와 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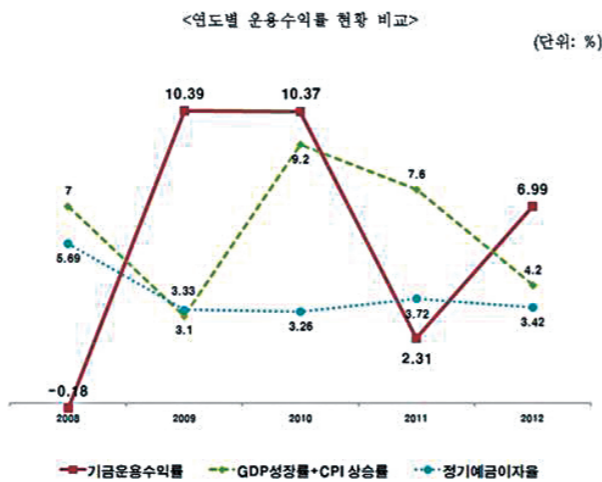
국민연금 자산규모가 지난해 43조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외 금융 투자로 7%에 가까운 수익을 낸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이 착실한 수익을 내고 있지만 고갈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하다. 고령화 추세에 따라 연금 지급액이 많아지면서 2060년쯤 완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박근혜대통령의 기초연금 지급 공약과 맞물려 불신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 폐지운동도 한창이다. 열흘 만에 서명자가 4만 명을 넘었다. 국민연금,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 국민연금의 허와 실을 파헤쳐 본다.



ISSUE

국민연금, 허와 실

국민연금기금 자산 규모는 392조 9244억 원이다. 부채를 뺀 순 자산만도 391조9천억 원에 달한다. 지난 2008년 235조4천억 원이었던 국민연금 순 자산은 매년 증가세를 유지해 지난해 350조원을 돌파했다. 1년 전인 2011년과 비교해 43조원 늘어난 규모다. 기금운용 수익률은 6.99%로, 전년 대비 4.68%p 증가했다. 그럼에도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이 주인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400조원에 이르는 국민연금기금을 쌓아두고도 평생을 노후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자료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많이 내고 적게 받는다는데, 사실일까?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로 정률이지만 낸 돈에 따라 받는 배율인 수익비는 소득이 적을수록 높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수익비는 2.5에 달하지만 375만원은 1.3에 그친다. 오히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다. 국민연

금제도는 애초에 사회통합적 기능,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는데, 못 받게 되는 건 아닐까?

2008년 재정추계를 보면, 현재 400조원이 쌓여 있는 기금은 2040년 초반에 2465조원까지 늘었다가 2060년께 완전히 고갈될 전망이다.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저출산 문제다. 하지만 정부가 책임지고 지급을 보장한다. 연금 기지급은 국가의 존립이 달린 문제로 서구에서도 정부 보조, 부과 방식 등의 전환을 통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재정위기에 처한 그리스에서도 연금은 지급된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의 수익성, 어디가 더 좋을까?

국민연금은 세금 같고 연금저축은 저축 같다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따라올 수 없다. 물가가 상승하는 만큼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로 만들어진 유일한 제도가 국민연금이다. 하지만 연금저축은 약정한 금액만 지급해 아무리 물가가 상승해도 연금액이 늘지 않는다. 보험료 1을 내면 국민연금은 평균 1.8을 주지만 연금저축은 0.8만 준다. 한마디로 국민연금은 내는 것보다 더 받고, 연금저축은 내는 것보다 덜 받는다.

국민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국민의 노후 소득 안전장치인 국민연금은 후한 지급 구조로 설계된 탓에 언젠가는 기금이 고갈될 운명을 타고났다. 정부는 국민연금제도 개선책으로 사적연금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식을 택했다. 국민이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은 믿지 못하고 민간보험인 연금저축에 매달리게 된 것이다. 정부는 지금껏 연금저축·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의 장점을 부각시키며 그 시장을 의도적으로 키워왔다. 그중에서도 노후 책임을 개인에게 지우는 연금저축 확대에 특별히 공을 들여왔다.

지난 1월, 기획재정부는 12년 만에 연금저축제도 개편안을 조용히 발표했다. 민간 금융회사의 영역인 연금저축 시장의 빗장을 풀어주는 내용이 중심이었다. 일단 연금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 제한(만 18살 이상)을 없앴다. 연금저축은 여유 계층에게 매력적인 상품이다. 연금저축을 통해 미리 조금씩 증여하면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적은 비용을 들

여 자녀의 노후까지 책임져주는 훌륭한 유산인 셈이다. 이번 제도 개편에는 연금제도를 민간 영역으로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도 확실히 반영돼 있다. 노후생활 보장의 책임을 국가에서 개인으로 옮기고, 노후생활비를 굴릴 주체도 정부에서 민간 금융회사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개인에게 부담을 지우고 금융회사들엔 시장을 넓혀주는 식이다. 문제는 사적연금이 모두의 기대처럼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보장해주는 안전판이 아니라는 점이다. 국제금융기구가 권고하는 평균소득자(35년 가입 기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0%다.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국민연금은 35%로 권고안보다 높게 나온다. 반면 사적연금은 다 합쳐도 권고안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공적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덕에 기금 고갈을 우려할 정도로 후한 지급 시스템으로 설계된 반면, 민간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사적연금은 운용비용을 제외하면 상품에 따라 잘해야 원금 정도를 나눠 돌려주게 돼 있다.

국민연금 개혁론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 발표가 3월 말로 예정돼 있다. 기금 고갈을 늦추는 방법이라며 여기저기서 제시된 방안은 급여 수준 인하부터 완전 폐지까지 다양하다. 대부분 기금의 재정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춘 나머지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의 본질은 간과한 방식이다. 대안은 국민연금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대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집은 많은데 내가 살 집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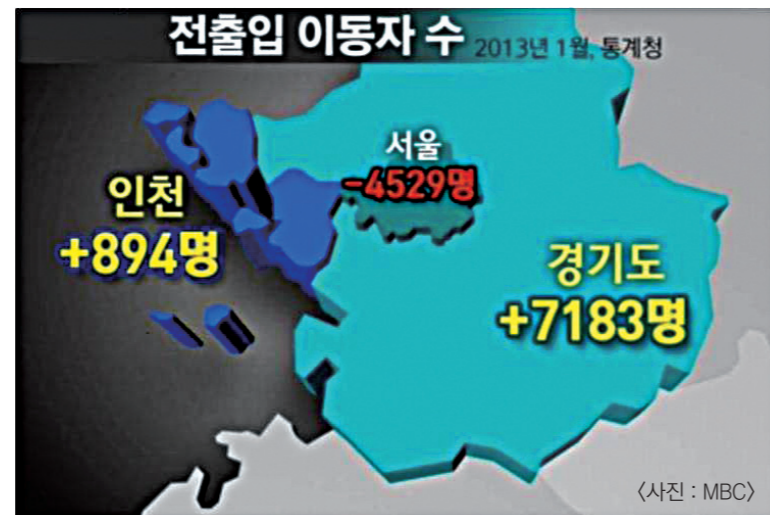
우리나라 전월세 폭등과 해외 주거 정책

한국에는 집이 넘친다. 전체 가구 수보다 집이 많아진 지 오래다. 하지만 내 집을 소유한 가구는 절반 수준이다. 집을 소유해도 빚더미 위에 올라앉은 경우가 태반이다. 나머지는 여전히 살 집을 찾아 헤맨다. 그러나 한국 특유의 전세제도가 균형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이 균형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다. 집값 하락으로 전세 물량이 줄어들다가 최근에는 '전세 종합론'이 나올 정도로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런 대책 없이 전세시장에서 밀려난 세입자들은 그보다 열악한 월세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전국의 전세가는 최근 4년 동안 30% 올랐다. 부산과 대전 등 5대 광역시가 35%로 가장 많이 올랐고 서울은 29% 상승했다. 서울의 평균 주택 전세가는 2억 3천만 원, 아파트는 2억 6천만 원에 달한다. 최근의 전세난은 이사철에만 반짝하던 예년과 달리 구조적인 문제로 굳어지고 있다. 전세가가 집값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한다. 전세물량이 적은 이유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중소형 주택이 중대형보다 모자란 데다, 집값이 떨어지고 금리도 낮은 상태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돌리는 주인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전세가가 1년 정도 오르면 반드시 매매가가 뒤따라 오르는 선행성이 있었는데, 최근 2008년 이후로 그 공식마저 깨지고 있다. 오히려 매매가는 떨어지고 전세가는 오르는 반대 양상이 뚜렷하다.

강남에서 강북으로,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셋집은 모자라고 전세가는 치솟는 전세난이 계속되고 있다. 오른 전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고 아예 감당하지 못해 다른 동네로 밀려나는 이른바 전세난민이 늘고 있다. 서울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물리면서 경기도 신도시 전세가가 크게 올랐다. 남양주의 경우, 1년 만에 1억 원이 오른 곳도 있다. 실제로 서울 인구는 지난 1월에만 4천 5백 명이 줄어드는 등 최근 2년 연속 감소했다. 서울 잠실에서 강북이나 경기도로 나가고 그 빈자리는 강남에서 넘어오는 인구대이동이 벌어지고 있다.



전월세 폭등, 대책은 없나?

집값이 올라갈지 지금보다 더 떨어질지, 그래서 전세가도 안정을 되찾을지 계속 치솟을지 어떤 전문가도 장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전월세 대책으로 공약한 '목돈 없는 전세'는 인수위에서 조차 홀대받을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명박 정부의 유일한 전월세 대책이었던 대출지원제도는 당장에 전세자금에 급한 서민들에게는 쓸데없지만 집 없는 서민들의 부채를 누적시킨다는 점에서 장기적이고 핵심적인 전월세 대책이 될 수 없다. 현재 5%에 불과한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장기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전세계약기간을 늘려 세입자를 보호하는 수단 등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무엇보다 전세대란을 해결하는 대책은 주거권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 주거 정책, '주택마련' 아닌 '주거권'의 문제

선진국에서는 집을 단순한 재산이나 투자대상이 아닌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로 여긴다. 전세 개념이 없는 외국은 월세 형태의 다양한 임대주택제도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한다.

독일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 집'이 없다. 자신의 집을 소유한 사람은 도시 거주자 중 단 33%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입자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3층짜리 집을 임대해 사는데 공과금과 전기료를 포함한 임대료가 우리 돈 120만원 정도다. 보증금 개념이 없고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2배가량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합리적인 금액이다. 거주하는 동안 집주인이 마음대로 임대료를 올릴 수도 없다. '임대차법'에 따라 시에서 정한 임대료 기준에 따라야만 하기 때문이다. 집의 크기, 위치, 시설 등에 따라 집세를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기준을 상세히 정해 놓았다. 또 임대료를 더 준다고 해서 현재 세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세입자를 마음대로 들일 수도 없다. 독일은 어느 도시에도 '세입자협회'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한 스파르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한 세입자는 우리 돈 약 55만원의 임대료를 낸다. 11년 전 입주할 당시 임대료는 약 48만원이었다. 11년 동안 임대료는 단 7만원 오른 셈이다. 네덜란드는 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이 워낙 보편화 되어있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저소득층'이라는 인식도 없다. 네덜란드에는 전국 500여개의 사회주택회사가 있어서 주택을 보다 저렴한 값에 제공하고 관리한다.

프랑스는 전체 가구의 18%가 공공임대주택에서 살고 있다. 프랑스 국민은 자택을 소유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거주할 권리를 가진다.

〈4·1 부동산 종합대책 내용〉

주택거주안정대책	
하우스푸어 지원 방안	
• 집주인이 보유 희망할 경우 장 단기 금융이자 연체자 채무조정	5월
• 집주인이 매각을 희망할 경우 임대주택리츠에 주택매각 후 재입대(5년)	6월
• 주택연금 가입연령 60세~50세 일시인출한도 50%~100%	6월

렌트푸어	
• 목돈안드는전세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집주인 비과세 이자소득공제 40% 재산세와 종부세 감면	6월 국회제출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양도 방식 임차인이 전세금을 대출한 금융회사에 대출금의 120% 내에서 보증금 반환채권 양도	6월 국회제출
• 전세자금 대출요건 완화 부부합산 4000만원~4500만원 대출한도 8000만원 → 수도권 1억원 지방 8000만원 금리 3.7%→3.5%	4월

시민주거안정대책	
• 공공주택 연 13만가구 공급 임대주택 7만 매입 및 전세방식 4만 분양 2만	즉시
• 철도부지 및 국 공유지 행복주택	12월
• 올해 수도권 1만가구 향후 5년(2013~2017년)간 20만가구 공급	2014년
• 저소득층에 월 임대료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도입	
• 대학생 전세임대 지속 공급(연 3000가구)	12월
• 기숙사 건축비 연 2% 저금리 융자 지원	
•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연 2조 5000억원 연 3.5%)	4월
• 고령자 장애인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갖춘 임대주택 공급 확대	6월
• 영구임대주택 난방비 부가기치세 면제	9월 국회제출



집 걱정 없는 선진국에서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동등한 '권리'로 여겨진다. 우리나라의 집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필요할 때다.

“고객을 대하는 진정성이 제 영업의 비결입니다!”

Enterprise고객2본부 기업고객2담당 그룹4팀 강주성 조합원



영업은 비즈니스의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가장 치열한 전투다. 그것이 개인영업이 아닌 기업영업 일 경우에는 훨씬 치밀하고 수준 높은 전략이 요구된다. 그 불꽃 튀는 전선에 뛰어들지 불과 2년도 되지 않아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다면 그에게는 분명 남들에게 없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경칩을 넘긴 봄을 시샘하는 3월의 꽃샘추위에도 광화문 올레스퀘어는 여느 때처럼 활기찼다. 한 해의 포문을 여는 이맘때, 꽃피는 봄조차 외면하고 정신없이 바쁜 강주성 조합원을 만난 곳도 그곳이다. 들직한 체구에 아이패드를 손에 쥔 단정한 차림새, 차분하고도 힘이 느껴지는 목소리가 척 보기에도 믿음직스럽다.

그가 KT와 첫 인연을 맺은 것은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91년 하국통신 중앙지부 요금관리팀에 입사한 이후로 19년 간 줄곧 요금 파트에만 근무하던 강 조합원이 영업으로 발을 옮긴 것은 2011년이다. 이유는 단순했다. 더 늦기 전에 영업이라는 것을 한번 해 보고 싶었다는 것. 평소 사람들을 만나고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다 보니 영업은 그에게 적격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기업을 상대로 하는 영업일 때는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KT에서 잔뼈가 굵은 대로 굵어진 그였지만 영업전선에 뛰어들지 첫째, 그것도 기업영업이 절대 호락할 리 없었다.

두독한 배짱과 신뢰가 최대 무기

현재 강주성 조합원이 맡고 있는 기업은 모두 8개사다. 영업 첫 해부터 워낙 덩치가 큰 기업들을 맡아 관리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강조합원 스스로가 영업 첫째는 무척 힘들고 부담감이 있었다고 고백한다.

“영업에 대한 걱정보다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영업전선으로 뛰어들 것도 잘해 낼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기업영업이 그리 만만하지가 않았어요. 저에게 영업 첫째는 재미는 있었지만 몇 십억 매출의 기업을 내가 책임져야한다는 부담감이 꽤 컸어요.”

그가 소속된 엔터프라이즈 2본부는 일반 주식회사 관리 파트다. 그 가운데 강주성 조합원이 담당하는 곳은 외국계 회사다. 기업영업에서는 고객의 장기적 성공을 위해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그는 이러한 기업관리가 복잡하면서도 의외로 단순하다고 했다.

“신뢰를 먼저 쌓아놓고 요구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기업영업은 개인영업과 달리 시간을 다투는 일이에요. 기업의 요구사항을 제때 철두철미하게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강주성 조합원은 지난 2년 안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다. 그도 그럴 것이 영업전선에 뛰어들지 불과 2년도 되지 않은 신참 아닌 신참이 그야말로 억 소리 나는 성과를 올렸으니 주위는 물론 그 자신도 놀랄만했다.

그의 주요 성과는 이렇다. 강조합원은 지난해 에스오일 등 관리고객사를 대상으로 LTE폰, 스마트폰, 아이패드 등 9,700대의 스마트폰 판매고를 올리며 수주 매출액 120억 원을 기록했다. 그의 또 다른 주력사인 매트라이프생명과는 1년 13억 원의 PSTN(전화통신망)을 재계약하고, 1,000회선의 쿡인터넷을 3년간 10억에 계약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매트라이프생명과 계약 성과는 스스로의 실적뿐만 아니라 회사에도 큰 의미를 안겨준 성과로 평가받는다. 사실 매트라이프생명의 쿡인터넷 계약은 2011년 이후에 ITO인 SKC&C로 이탈 결정된 사항이었다. 이것을 다시 반복 계약한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라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그에게는 더욱 의미가 컸다. 이 놀라운 성과를 거둔 데에는 무언가 특별한 그만의 영업 노하우가

있지 않았을까 싶지만 그는 다만 집요한 배짱이 비결이라면 비결이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보면, 영업을 하다보면 자연히 매출이 적은 곳은 발길이 뜸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연히 매출이 많은 쪽을 신경 쓰게 마련이다. 그러다보면 매출이 적은 회사의 불만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영업직원들은 그곳을 당연히 꺼리게 되는 것이 인지상정. 하지만, 스스로에 대한 믿음 때문일까. 강주성 조합원은 보통의 생각에서 살짝 비껴나 이를 마다하지 않고 적극 한 발 앞으로 나섰다는 것이 사실 놀라운 만큼 선뜻 납득 되지가 않는다.

“저는 다른 영업직원들이 꺼리는 곳을 오히려 자주 찾아갔습니다. 별일은 없는지 늘 물어보고, 메일도 더 빨리 처리해주고요.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사이가 좋아져서 신뢰가 쌓여갔어요. 신상품이 있으면 부담 없이 찾아가서 검토를 권유하기도 하면서요. 거기서 끝이 아니라 또 수시로 점검을 하죠. 그렇게 꾸준히 친근하게 접근한 것이 지난해 에스오일의 LTE폰 7,000대 판매성과로 이어진 겁니다.”

결과만 놓고 본다면 쉽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의 이러한 성과는 결코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다. 현재 통신시장의 기업영업은 특히 타사와의 경쟁이 심하다. 이러한 숨 막히는 영업의 최전선에서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의 전략적 무기는 KT의 기술력과 이름뿐이라고 했다. 게다가 KT는 타사에 비해 가격 또한 높아서 영업 싸움은 더 힘들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KT의 높은 경쟁력을 자신한다고 했다. 통신시장을 통틀어 KT라는 이름의 중요성은 기업고객들이 더 잘 인지하고 있다는 게 그의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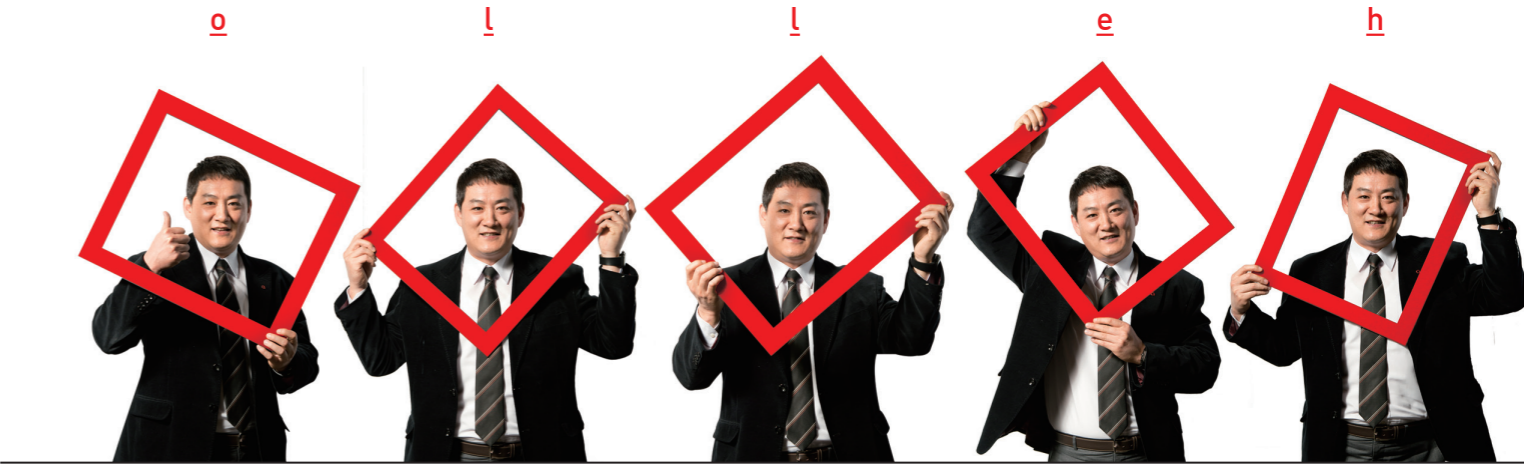
“매트라이프생명의 경우는 연 7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던 곳이었습니다. KT가 아쉽게 사업을 놓친 탓에 서로 영업을 맡지 않으려 미루던 것을 ‘내가 해보겠다.’고 겁 없이 나선 겁니다.



솔직히 영업 첫해다 보니 좋은 기업만 맡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요. 매트라이프생명을 처음 찾아갔을 때는 ‘KT는 도둑놈이다’ 뭐다 하며 싫은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때로는 강하게 나가기도 하면서 집요하게 싸움을 이어갔죠. 반드시 내가 하나만이라도 지켜내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결국 전부는 아니라 해도 일정 부분을 되돌려 성사시킨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 경험을 통해 영업을 굉장히 빨리 배웠다고 생각해요.”

실적만큼 인정받을 때 느끼는 보람

흔히 기업 영업의 핵심을 이렇게 말한다. 세일즈 스킬로 상대방의 요구를 적시에 파악하고 의사결정 구조에 맞는 대량의 서비스와 상품을 론칭하는 것이라고. 그렇지만 강주성 조합원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을 때의 답은 화려함 없이 진솔했다. 그가 영업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니뭐니해도 사람과의 신뢰다. 자신만의 영업 전략을 말해 달라 해도 ‘달리 무슨 노하우가 있냐’는 듯 머쓱하게 웃는 그의 얼굴에서 꾸밈없이 사람 대하는 그의 태도가 슬쩍 드러나 보인다.



“글쎄요. 모르겠네요. 그저 사람을 사귀는데 있어서 진정성 있게 다가간다고 할까요. 영업이 일차적으로는 회사의 기술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지만, 그것을 떠나서 사전에 KT에 대한 신뢰를 쌓는 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잘 사귀는 것이고요. 생각해보세요. 고객에게 찾아가면 사실 싫다는 표현은 다들 못합니다. 제 스스로 그쪽에서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빨리 파악해서 신속하게 처리 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 다들 좋아해주시더군요.”

사람 좋은 그이지만 힘든 점도 많다. 외부 일 못지않게 내부 업무도 녹녹치 않은데다 대개 규모가 큰 입찰영업을 맡다보니 무엇보다 가격이 맞지 않을 때는 말 못할 고충도 더하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영업으로 풀어야 한다는 것이 스스로에게 가장 큰 숙제지만,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물고 늘어지는 것이 강조원만의 최고이자 최선의 방법이다.

후배들에게 말하는 것도 바로 그것이다. 그는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신입 조합원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현장에 함께 다니면서 선배로서의 조언도 잊지 않는다. 하지만, 당부의 처음도 끝도 그가 강조하는 것은 단 한가지다.

“제가 후배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한가지이예요. 고객에 대한 신뢰와 약속! 그것만큼은 반드시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강주성 조합원은 영업이 무척 매력적인 일이라고 했다. 작년의 실적이 올해의 부담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그마저도 유쾌한 도전이다. 위대한 세일즈맨들의 공통점은 거절당해도 굴하지 않는 회복 탄력성과 낙관주의, 자신의 세일즈 능력에 발동을 거는 간절한 욕구라는 어느 책의 말이 있다. 그에게서 느껴지는 에너지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저는 영업이 재미있고 굉장히 보람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실적이 나오는 만큼 회사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요. 올해는 지난해 못지않게 잘해보려고 구상 중입니다. 일단 맡고 있는 8개 기업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모바일 부문 4개 기업을 KT로 옮겨오는 것도 올해 목표입니다. 물론, 자신 있습니다!”

영업은 다름 아닌 상대를 움직이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삶의 기술이라는 것. 강주성 조합원이 올해도 거침없이 증명해 보일 모양이다.

노동자가 행복해야 건강한 사회

노동자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무역수지 1조 달러,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다. 세계가 인정하는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지만 경제 성장의 주역인 노동자의 삶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주인공 없는 경제 대국이다. 양적 성장에만 몰두한 나머지 질적 성장은 돌보지 않은 결과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내총생산(GDP)을 대신하기 위한 지표로 행복지수(Better Life Index)를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우리 노동자들은 과연 행복할까? 노동자들이 바라는 행복한 삶은 어떤 모습일지 들여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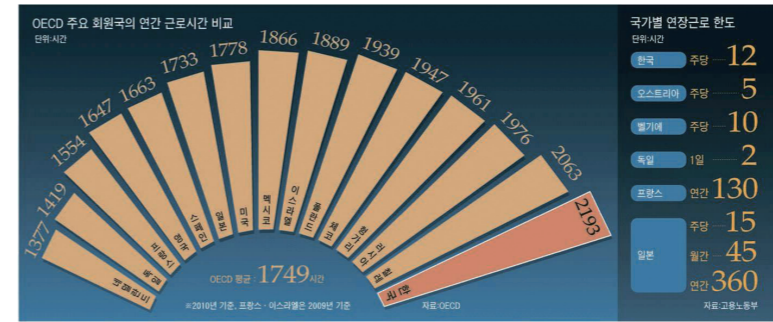
노동자에게 행복이란?

한국노총은 '노동자들이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에 대해, 지난달 20일부터 29일까지 열흘간 소속 조합원 5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했다. 조사 결과, 행복하기 위한 적정 임금수준을 묻는 질문에 400~500만원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2%로 가장 높았다. 500~600만원이 23%, 300~400만원이 22.3%로 뒤를 이었다. 총 응답자의 77.3%가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고 답했으나, 실제 자신의 임금은 300만 원 이하라는 답변이 61.1%나 됐다. 희망과 현실 사이의 격차가 컸다. 행복하기 위한 적정 노동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주당 45시간 이하라고 응답한 비율이 96.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나 현재 자신의 주당 노동시간이 45시간 이상이라고 답한 비율이 46%에 달했다. 우리 사회의 장시간 노동관행이 여전히 여전한 함을 드러냈다.

이밖에, 현재 자신이 행복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25.2%만이 행복하다고 답했고 58.9%는 '보통', 14%는 '행복하지 않다', 1.9%는 절망적이라고 답했다. 한편 노동자들은 직장에서 승진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것보다 가족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64.7%) 더 행복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설문에서도 휴일은 가족과 함께 보낸다는 응답이 37.5%, 집에서 쉬는 30.5%, 취미활동을 한다 28.3%로 나타나 가족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했다.

세계 최장 근로시간... 행복지수는 최하위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행복지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노동 현실이 여실히 드러난다.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소득, 일, 건강, 삶에 대한 만족도 등 11개 부문을 수치화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전반적으로 낮았다. 특히 한국의 노동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193시간으로, OECD 평균(1749시간)보다 444시간 많았다. 이어 칠레(2068시간), 그리스(2017시간), 러시아(1973시간), 헝가리(1956시간)의 순이었다. 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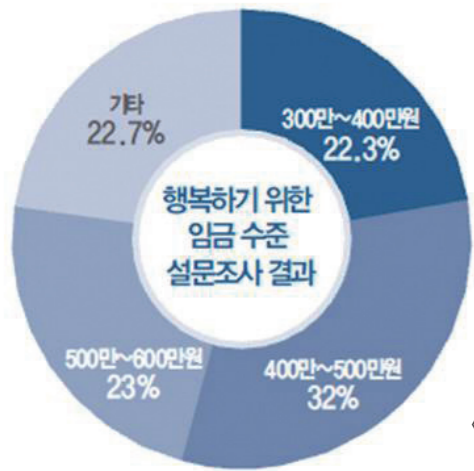


(자료 : 중앙일보)

노동시간이 가장 짧은 네덜란드는 1377시간에 불과했다. 이는 한국보다 816시간 짧은 것이다. 독일은 연간 1408시간, 노르웨이는 1413시간, 프랑스는 1439시간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국 중 노동시간이 긴 나라들은 대부분 1인당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고, 행복지수도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1만6570달러(약 1940만원)로 OECD 평균인 2만2387달러(약2624만원)보다 낮았고, 행복지수도 24위에 그쳤다. OECD 평균(59%)에 훨씬 못 미치는 36%만이 '삶에 만족 한다'고 답했다. 반면 노동시간이 짧은 네덜란드(8위)와 노르웨이(2위), 덴마크(5위) 등은 모두 행복지수 10위권에 들었다. 또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이 평균 5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시간은 가장 긴 반면, 근속연수는 가장 짧아 일자리의 질이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정규직 근로자의 동일 직장 평균 근속연수는 5.1년으로, 자료를 제출한 26개 국가 중에서 가장 짧았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근속연수는 포르투갈(12.9년), 프랑스(12.0년), 독일(11.5년) 등 평균 근속기간이 10년이 넘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 비해 절반 수준에 불과하고, 가장 긴 그리스의 13.8년보다 8년 정도나 짧았다. 그만큼 우리 고용시장이 불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의 질 개선과 인식의 전환이 절실

우리나라 노동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한다. 반면 근속연수는 가장 짧다. 소득은 OECD 평균에도 못 미친다. 불행할 수밖에 없는 노동환경이다. '일' 중심에서 '삶' 중심으로 노동 가치의 전환이 절실하다. 실제로 일과 삶의 조화가 인재 확보와 업무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한국노총의 설문조사 결과가 보여주듯, 노동자의 행복을 위해서는 가족 친화적인 근로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업의 매출 목표는 해마다 상승하는데 인력이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노동시간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개 업체 가운데 9개(88.6%)가 법정 연장근로 한도인 주 12시간을 초과해 근무했고, 4개 업체(39.9%)는 휴일에도 근무한 것으로 드러



(자료 : 매일경제)

났다. 적은 인력으로 최대한 이익을 챙기려는 사용자 측의 인식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여기에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지 않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도 여전히 존재한다.

노동생산성을 높여야 노동자가 행복

장시간 노동을 해소하는 것이 행복한 일터의 첫걸음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를 위해 조직 문화, 개인인식, 근무 환경 등에서 획기적인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노동시간은 줄이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노동자가 느끼는 행복지수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일과 가정의 균형을 확립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근로환경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것이 노동생산성과 근로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여 노동자의 행복을 실현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연장근로 관행 개선 등 제도적인 정비 가 절실하다.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 이를 지키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나누는 업체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되어 노동자의 행복지수도 함께 높아질 것이다.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 제29회 한국여성대회 개최

여성의 지위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한 변화!
KT, 여성임원 대거 승진, 전체 여성임원 비율 11%로 증가!



지난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다. 여성의 자유와 사회진출의 문제가 여전히 전 세계적인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올해 첫 여성 대통령 시대를 열면서 여성의 지위 향상에 대한 기대의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특히 KT는 이번 정기임원인사를 통해 여성임원을 대거 발탁, 여성친화기업의 선두주자라는 타이틀을 이어 가며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 있다는 평가다.

‘세계 여성의 날(International Women's Day)’은 여성의 지위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1975년 UN에서 정한 날이다. 세계 170여 개국에서 이 날을 기념하고 베트남, 러시아, 중국, 캄보디아 등에서는 국가 공휴일로 지정할 만큼 의미 깊은 날이기도 하다.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섬유노동자 1만5,000여명은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다 화재로 숨진 여성을 기리며 뉴욕 루트거스 광장에서 가두시위를 벌였는데, 이것이 세계여성의 날을 재정한 계기다.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등 여성 근로자들의 지위향상과 인권을 보장하라는 그들의 투쟁으로



인해 오늘날 여성들의 자유와 지위는 향상될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이날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주관하는 한국여성대회가 열려 빈곤, 폭력, 소외와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정책과제를 담은 3.8여성선언이 발표되기도 했다. 한국여성대회는 1920년부터 개최됐지만 일제강점기에 맥이 끊겼다가 1985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며 올해 29회를 맞이했다. 하지만 한국여성들의 사회진출은 남성과 비교해볼 때 여전히 미비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0위권이지만, 남녀임금격차는 38.9%로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이고, 성 격차지수는 OECD 135개국 가운데 108위(세계경제포럼, 2012)다. 10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여성들의 진정한 권리를 위해 싸우고 있는 이같은 현실에서 우리나라 첫 여성대통령 시대에 맞이하는 첫 여성의 날은 의미가 클 수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장관 및 정부위원회 내 여성비율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 채용 목표제를 도입하는 한편 여성교수, 교장 채용 쿼터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10만 여성인재 양성 프로젝트’를 공약한 바 있고 여성가족부도 인수위원회를 통해 2017년까지 공공기관의 여성임원 비율을 높이는 등의 여성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설 것을 발표했다. 이러한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재계에서도 여성 임원 등용이 늘어나고 있다. 롯데, SK 등 보수적인 이미지의 기업들도 여성 임원을 발탁했다. 헤드헌팅전문기업 유니코써어치

가 공개한 ‘2013년도 100대 상장기업, 코스닥 100대기업 여성 임원 전수 조사 현황’에 따르면 국내 100대 기업 여성 임원수는 올해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섰다. 여성임원 숫자는 2004년 13명에 불과했던 것이 2010년 51명, 2011년 76명에 이어 올해 114명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왔다. 여성 임원이 100명으로 증가하는데 10년이 걸렸지만, 이러한 추세라면 향후 5~6년 이내에는 여성 임원 승진이 더욱 일반화되어 임원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시기가 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KT는 그 선두에 있는 기업이다. 지난 2월 17일 있었던 KT의 상무 승진인사 단행에서 승진인사 총 17명 중 5명을 여성으로 대거 발탁하며 여성비율은 30%를 차지했다. 이번 인사 이후 KT의 상무 이상 여성 임원도 8명에서 13명으로 증가해 전체 여성 임원 비율은 11.3%에 이르게 됐다. 이번 단행까지 반영하면 KT는 상무보급 이상 여성 임원이 총38명으로 국내 상장기업 중 가장 많은 여성임원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다음은 삼성전자로 22명이다. KT는 이석재 회장 취임 이후 여성인재 육성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꾸준히 로드맵을 실천했다. 고객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서비스 기업의 특성을 살려 여성임원 육성에 대한 필요성을 일찌감치 간파하면서 여성 임직원 대상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왔다. 아직 재계에 여성임원의 전성기가 왔다고 보기는 이르지만, 여성 대통령의 등장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호의적이고, 육아 휴직 장려 등 직장여성이 출산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향상에 대한 기대는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KT을 선두로 기업들의 여성인재 등용이 고무적인 가운데 아직 국내 100대 기업 전체의 여성 임원 비율이 인도(4.8%)나 중국(7.2%)보다 낮은 1.48%에 불과한 것을 보면 갈 길은 멀어 보인다. 하지만 보다 다양한 정책이 실현되어 한국여성대회의 슬로건처럼, 빈곤과 폭력 없는 세상에서 여성의 삶을 꿈꾸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여성 인권과 인식의 변화

옛 시대의 문제점을 개선시키기 위해 역사는 끊임없이 과거에서 현재로 진보했다. 그만큼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은 것들이 변화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가 바로 '여성'에 관한 것이다. 여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따라 인류는 조직이나 공동체를 넘어 국가의 발전에 영향을 받았다. 수백, 수천 년의 세월을 지나 21세기로 들어온 지금, 만년 2류 존재일 것 같은 '여성'의 지위와 역할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룩했다.

남성의 보조 역할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기까지
전부터 노동이란 남성의 성 역할로 여겨져 왔다. 당연히 사회활동을 하는 남성들은 노동을 하여 소득을 얻게 되고, 그 소득으로 가정의 경제활동이 이루어짐에 따라 남성들이 가정에서 갖는 권위는 상승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성은 수세기 동안 집안일이라는 남성의 보조 역할로써만 머물렀다. 심지어 개인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인 참정권을 갖게 된지도 채 100년이 되질 않는다. 여성의 참정권 운동은 1830년대에 미국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했다. 미국은 그 특수한 국가 건설의 역사와 노예 해방 운동으로 인해 자유주의 사상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강하게 뿌리를 내린 곳이다. 미국인들에게 있어 "만인은 평등"하다는 원리는 단순한 표방이 아니라 싸워서 성취해나간 현실적 과제였다. 미국 여성들은 독립 운동과 노예해방 등을 통해 '평등'의 의미를 본격적 차원에서 되새길 수 있었고, 따라서 조직적으로 참정권 운동을 벌여갈 수 있었다. 1878



년에 참정권 청원이 의회에 처음으로 제기된 이후, 여성들의 끈질긴 노력의 결과로 1920년에 드디어 미국 여성의 참정권이 통과된다. 이는 모든 여성 국민에게 참정권이 허용된 최초의 사례다. 자유주의 사상이 지배적이던 미국과 달리 사회복지주의적 전통이 강한 영국은 1850년대부터 국가 주도 아래 기혼 여성의 재산권과 가족 복지, 교육과 취업, 그리고 빈곤 문제에 관하여 점진적 개선을 이루어왔다. 여권운동가들이 남녀동권을 꾸준히 주장했지만, 영국은 1928년에 이르러야 전여성에게 남성과 동등한 참정권이 부여됐다. 프랑스에서는 1789년 프랑스혁명이 일어난 해에 국민의회에 '정치상 남녀가 동권(同權)이어야 한다'는 건의가 올라갔으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1793년에는 국민공회로부터 여성의 집회가 금지되었고, 모든 여성단체는 해체되었다. 여성의 참정권을 주장하던 여성들이 프랑스혁명에 참가하여 투옥됨으로써 여성 참정권운동은 좌절되었고 혁명도 끝났다. 그러나 프랑스의 여성참정권운동은 19세기 말에 영국과 미국의 여성운동의 영향을 받아 다시 활발히 불타올라, 여성운동이 시작된 지 1세기 반 만인 1946년에야 비로소 법률상 여성참정권이 보장되었다. 후발주자인 아시아·아프리카에 사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국가의 독립과 민주주의의 도입과정에서 투쟁 없이 참정권을 얻게 되었는데, 한국은 종전(終戰)과 함께 1945년 8·15광복을 계기로 1948년 제정헌법에서 남녀의 평등한 참정권이 비로소 인정됐다.

산업 혁명과 시민 혁명으로 인해 서유럽 세계가 자본주의 체제로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여성들의 지위는 기존 사회와 크게 달라지게 됐다. 이제 집안에서 가사 노동만을 담당하던 것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체제의 노동자 계급의 일원으로 나서게 된 것이다. 1차 여성운동이 잠복기를 거친 후, 긴 침묵 끝에 1968년 이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여성운동의 두 번째 물결이 나타났다. 법적으로 기회의 평등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여성을 성적 대상이나 가사노동의 전담자로 생각하는 가부장적 가치관이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한 여성해방은 요원하다는 것이 여권 운동가들의 주장이었다. 새로운 여성운동은 불평등한 결혼생활, 가족 내의 남녀차별 등이 단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며 바로 이를 통해 남성우위의 사회적 제도가 유지된다고 지적하였다. 새로운 여성운동은 1970년대에 북미와 유럽으로 확산되었으며 성폭력에 반대하는 운동, 여성을 대상화하는 것들과 성매매 및 미인대회에 반대하는 운동으로 대중적 시선을

집중시켰다. 한국에서도 1952년 최초의 여성법조인이 탄생하는 등 소수 여성의 법조계 진출과 여성정치인의 등장에 의해 당시 여성의 지위향상 문제는 힘을 얻을 수 있었다. 70년 이후 핵가족화 및 산업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생활방식이 급변함에 따라 생활문화교육 및 여성들의 취업교육수요가 증가했다. 이 시기에 부녀교실을 중심으로 한 교육사업에 많은 재원이 투입되면서, 여성운동은 다양한 여성학적 연구와 문제의식을 환기하였으며 자기권리에 대한 여성 대중의 적극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20세기 후반 다양한 여성운동이 활성화 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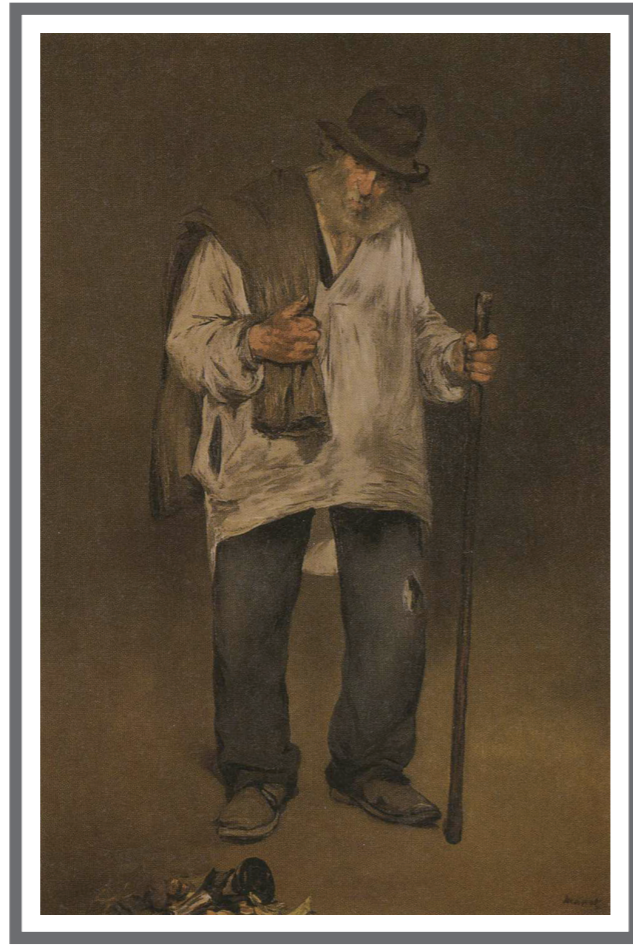
더 이상 낮설지 않은 일하는 여성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여 노동을 시작하면서, 여성을 무시하던 남성들이 여성과 동등한 상태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다. 상대적으로 일처리와 사고능력이 우월한 여성들이 사회의 고위직에서 일하고 있고, 그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갈수록 높아졌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없어지고 남성이 여성의 바깥활동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상황이 됐다. 여성이 사회에서 설 자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 새로운 직업에 여성이 계속 관심을 갖고 참여하면서 성 역할은 무의미해지고 있다. 이처럼 분명 여성의 삶은 진보적으로 발전해왔고, 또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완성이 아니다. 여성의 사회진출은 늘어만 가지만 여성노동자의 70%는 비정규직 노동자로 고용되어 있다. 그것도 대부분 청소, 요리, 육아 등 가사노동과 유사한 노동 영역이다. 이러한 노동은 우리 삶에 필수적이면서도 모성이나 여성성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노동으로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때문에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노동을 하며 빈곤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갖기 위해 투쟁해 온지 어느덧 200여년이 지났다. 이제 여성과 남성이 모두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면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되어야 하며, 정부의 통합적 여성인권 종합대책 마련 등 완전 평등을 위해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중장년 여성노동자의 다수가 최저임금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이들 여성노동자들의 낮은 임금이 결국 남녀 임금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여성계의 더욱 활발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를 찾아 길 위에 서다

일요일 새벽, 잠에 취한 딸과 남편을 깨워 영등포역에 나갔다. 태백산맥을 타고 조그만 간이역들을 쉬엄쉬엄 거쳐 풍기역까지 내려갔다오는 눈꽃열차를 타기 위해서였다. 기차역에 나오면 소설이나 영화 속 이런저런 장면들이 떠오른다. 떠나는 연인을 마지막으로 보기 위해 플랫폼에서 뛰는 여자, 눈물을 삼키며 목메어 먹는 삶은 달걀, 새벽에 역에서 내려 훔칠 말아 먹는 국밥 한 그릇, '은하철도999'의 철이와 메텔도 생각한다. 하지만 그날 본 것은 이른 아침 역에서 아직 자고 있던 노숙자들이었다. 이들은 길 위에서 살기 위해 길을 버린 자들이다. 아무것도 구애받지 않고 최소한의 수치심마저 버린,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는 일그러진 자유로움의 경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던 길을 버렸나 보다.

파리가 예술의 도시로 각광받고 있던 19세기에 그곳에 모여들던 예술가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던 인간상은 바로 그런 자유로운 낭만주의였다. 문예비평가 발터 벤야민(Walter Benjamin)은 거리에 버려진, 쓸모는 없을지 모르나 아름다운 의미를 지닌 것들을 예술적 소재로 주워 담는 자라는 의미에서 예술가들을 낭만주의라고 불렀다. 물론 그 말에는 도시의 거리야말로 풍부한 예술적 상상력의 근원지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에는 화가들도 그런 의미에서 거리의 약사, 집시, 떠돌이 곡예사를 종종 그리고 있었다.



에두아르 마네, 「낭만주의」, 1869

기대 반 설렘 반의 떠남

에두아르 마네는 예술가로서의 자아상을 염두에 두고 「낭만주의」라는 그림을 그렸다. 그림 속 낭만주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정신적 자유로움을 즐기는 자이다. 그는 편안한 잠자리를 갖기 위해, 또 따뜻한 수프가 있는 풍성한 식탁을 갖기 위해 시간과 노동을 파는 대신 차라리 길거리에 누부러져 있는 거친 자유를 선택한다. 낭만주의에게 길은 곧 삶의 터전이다. 떠나면 길이 되고, 멈추면 집이 된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것은 마네 자신은 결코 낭만주의처럼 살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는 물질주의적인 중산층 집안 출신이었고, 낭만주의는 커녕 차라리 멋쟁이 댄디에 가까웠다. 마네에게 낭만주의는 그저 자유로운 예술가에 대한 은유에 불과

했다. 그리고 보니 영등포역에서 보았던 노숙자들도 생각만큼 자유로운 사람들은 아니었다. 그들 사이에서도 우두머리가 있는 듯 했다. 없는 자들 사이에서도 권력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기차가 도착했다.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1840~1926)의 그림 「생 라자르 역, 기차 도착」이 생각난다. 물론 오늘날의 기차는 이 그림 속의 증기기관차 처럼 역 전체를 뿌옇게 증기로 가득 채우면서 극적으로 도착하지는 않는다. 소독차가 지나가듯 아무것도 볼 수 없게 주변을 온통 하얗게 만들어버리는 당시의 증기기관차는 현실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머나먼 세상에서 출발하여 또다시 알 수 없는 세상 저편으로 사람들을 데려갈 것만 같다. 이상한 연기에 휩싸여 나타났다가 다시 연기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듯 그림 속 기차역은 신비감으로 가득 차 있다. 이곳에서는 평소와는 다른 특별한 무엇과 우연히 마주칠 수 있을 것만 같다. 은근히 나도 그 시절 기차역에서 처럼 특별한 어떤 것, 이를테면 자유 한 조각 같은 것을 기대하며 기차역에 나왔는지도 모르겠다.

가던 길 되돌아보기

“기차 탔어요”하고 간혹 만나는 선배에게 문자를 보내니, “사람들에게는 제각각 다른 길이 있다지”라는 답이 돌아온다. 저마다 다른 종착역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길이 있다니 선배다운 말이다. 선배는 대학 시절부터 자유로운 삶이 자기 앞에 펼쳐지기를 바랐던 사람이었다. 프로듀서 일을 하던 선배는 평소 염원이던 다큐멘터리 기획 프로그램을 맡았고, 그 제작을 위해 여기저기 오지들을 찾아 몇 개월씩 파견근무를 다녔다. 그런 일이 곧 자유로운 삶이라고 믿었던 그는 뜻밖에 커다란 벽에 부딪혔다. 매년 가족과 떨어져 오지 근무를 하는 일이 외롭고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다. 결국 누가 보아도 번듯해 보이는 그 직장을 그만두었다.

요즘 그 선배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소박하지만 안정적인 일을 하며 행복하게 지낸다. 표피적으로 자유로워 보이는 생활을 버리고 진정 자기 안의 자유를 선택한 사람이다. 과연 나는 내 안의 자유를 찾았는지 한번쯤 생각해보고 싶었다. 갑작스레 기차를 탄 것은 그런 이유에서였다. 기차 탔다는 몇 자 안 되는 내용에서 선배는 멀찌감치 후배의 심경을

읽은 것일까.

자유로운 삶은 토마스 모어가 지은 「유토피아」에서도 언급된다. 유토피아는 단순한 쾌락의 장소가 아니다. 그곳은 북송아꽃 향기 가득한 무릉도원도 아니고, 황금 강이 흐르는 엘도라도도 아니다. 유토피아에서의 행복한 삶이란 시간을 단순히 흥청망청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고 채워나가는 것에 있으며,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일을 하며 지내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 일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자기 시간을 지적이고 보람된 활동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성격의 것이었다. 여기서도 아이러니가 발견된다. 모든 시민의 자유로운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해 유토피아에서는 노예 제도를 묵인하고 있었던 것이다. 청소년 잡일, 소의 도살 등 선택할 수 없이 해야만 하는 고통스러운 일은 모두 노예의 몫이었다. 자유는 유토피아에서조차 모두에게 열린 길이 아니었나 보다.

하루 종일 기차를 타보았지만 정리된 생각은 하나도 없다. 사람들은 어디론가 가고 있지만 자기가 택한 길 전체를 볼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내리게 될 종착역은 목적지와 다를 수 있다는 것, 여기까지만 생각해봤을 뿐이다.

간혹 한번쯤 간이역에 내려서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미로에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미로는 길이 아니다. 방향성이 없기 때문이고, 선택의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길에 대해 너무 오래 의심하지는 말자. 잘 가던 기차마저 놓쳐버릴지 모른다.

출처 | 이주은 <그림에 마음을 놓다> 앨리스



클로드 모네, 「생 라자르 역, 기차 도착」, 1877

Voices of Readers

고 객 의 소 리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은 더 좋은 [마음이 통하는 '길']을 만드는 데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마음이 통하는 '길']을 읽은 느낌과 생각을 (kgb@kt.com)으로 보내주세요. 조합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구매전략실 계약센터 운영계약팀 조명희 조합원
기획특집 연재로 '정보통신의 발달사' 기사를 참 재미있게 봤습니다. 청색전화와 백색전화라... 이제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일이겠지요. 어린 시절을 되짚어봐도 전화 걸 때 번호를 누르지 않고 다이얼을 돌려서 걸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무선에 스마트폰이니까 정말로 비약적인 발전이네요. 옛 생각과 오래된 것에 대한 추억 등, 무척 흥미롭고 좋은 기사였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기획 기사 많이 실어주세요.

강서 엔지니어링 3팀 기태환 조합원
'길'이라는 노동조합 주관 잡지가 발행된다는 것을 저는 이번 호를 통해서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아무래도 같은 직원들의 시선에서 적은 글들이라 그런지 와 닿는 것이 많고, 복직 관련 소소한 정보들도 알 수 있어서 유익한 잡지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앞으로 '길'을 통해 더 유용하고 즐거운 소식들을 많이 접했으면 좋겠네요.

수도권강남고객본부 사내채널운영부 이난영 조합원
가끔씩 지부장님을 통해 보게 되는 소식지 '길' 잘 읽고 있습니다. 작년 호에 실렸던 '연봉 액수와 행복지수의 상관관계' 내용은 스크랩까지 해두었죠^^ 이번 호에서는 '강북네트워크운용단' 관련 기사가 인상적이었는데 마침 관련내용이 쿼트로 출제되어 로또 당첨된 기분으로 정답을 보냅니다. 앞으로도 조합원들을 위해 기분 좋은 소식, 유익한 소식 많이 전해 주세요!!

SMBRC센터 김경주 조합원
기획특집 [우리나라 근현대사와 함께 한 정보통신의 발달사]가 특히 좋았습니다. 아이들에게도 교육자료로 보여주려고 따로 스크랩할 정도로요. 그리고 현장24시 강북네트워크운용단의 LTE개통 뉴스는 우리 K인의 자부심과 가슴뭉클한 감동을 주는 따뜻한 기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통이야말로 조직 경쟁력과 상생의 비결"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KT노동조합이 소통에 있어 좀더 실천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울산지사Mass2팀 신용학 조합원
현장24시, 참 고생 많았네요^^. 하면 할 수 있다는 KT인이 자랑스럽네요. 박수를 보냅니다. 짹짹~♥

충남고객본부 유성지사 CS컨설팅팀 윤상덕 조합원
업무를 하다 보면 회사소식에 대해서 알 기회가 없지만, '길' 소식을 통해서 소식을 접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장 24시, 제가 현장에 있어서 그런지 관심이 더 많습니다. 꼭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구요 ㅎㅎ 앞으로도 현장이야기 및 각 분야 업무에 대한 이야기를 더 실어 주세요.

충청유선네트워크운용단 집중운용센터 전원관리팀 김종수 조합원
매번 잘 읽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는 특히 읽을 거리가 참 많아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근현대사와 함께 한 통신역사'랑 '민노총'에 관한 기사도 흥미로웠고요. 또 전국현장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생생한 소리를 좀더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설악산 대청봉에 LTE개통한 직원들이 어려움을 극복한 현장이야기처럼요.

대구유선네트워크 IP망팀 이원영 조합원
등산을 좋아해서 훗날 설악산 정상 대청봉에 꼭 오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현장 24시'를 보면서 느낀 것은 앞으로 kt LTE속도를 보면서 만족하고 주위에 자랑할 수 있겠다는 자부심이 들었어요. 10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하고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kt의 이미지와 품질을 위해 애쓰신 강북 엔지니어링 팀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엔지니어링단 강북엔지니어링센터 감리2팀 이종배 조합원
'길'을 보면 볼수록 노조소식 및 급변하는 통신시장, 경제, 복지 등 다양하고 실생활에 유익한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소식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예전엔 노보가 별로 재미없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생각해 볼 읽을거리가 많아서 한층 노조에 가까워진 기분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충남고객본부 세종지사 SMB 지원팀 오상진 조합원
여행지 맛집 소개 좀 등재해 주세요. 예전엔 여행지 소개도 종종 나왔던 것 같은데, 요즘엔 뜸하네요. 개인적으로 여행다니며 맛집 찾아 다니는 것이 인생의 활력소라서요^^



KTTU QUIZ

조합원 안정 강화 · 사회적 책임 확대 · 대정부 교섭력 확충을 위해 KT노동조합이 가입하게 된 상급단체 명칭은?
정답 보내주실 곳 : kgb@kt.com(김근배 홍보국장)

ANSWER

정답과 함께 소식지 '길'을 읽고난 소감을 메일로 함께 보내주시면 선별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보내주실 때 반드시 이름/소속/연락처/주소를 함께 기재해 주셔야 상품권이 배송됩니다.



정성을 다하는 상조회사

(주)다운플랜 서비스 이용안내

장례를 품위 있고 저렴하게 치르는 방법

첫째, (주)다운플랜 이용하기

- (주)다운1호는 일반 상조회사 약 400만원 이상 서비스보다도 우수
- 유족의 눈살을 찌푸리는 추가 요금 근절
- 전국 200여 개 장례식장 제휴로 10~40% 장례식장 비용 절감 (장례식장 이용료 약 200~300만원 소요)
- 전국 50여 개 납골당 제휴로 약 20% 납골당 비용 절감
- (주)다운플랜에서 현장 팀장 직접관리로 각종 비용 절감 (현장 팀장 (주)다운플랜에서 직접 정기적으로 교육)

둘째, 임종 전 또는 직후 다운플랜과 컨설팅 하기

- 저렴하고 깨끗한 제휴된 장례식장, 납골당 사전 컨설팅
- 임종 전 컨설팅으로 사전 장례행사에 대한 준비
- 병원 ~ 장례식장 고인 이동에 대한 비용 절감
- 장례행사 시 부가되는 각종 비용 절감

장례행사 시 가장 유의할 사항

- 음식에 대하여 관리하기(구입되는 음식물 금액관리, 음식물 마구 버리기 관리 등)
- 장례식장에서 구입하는 물품 수량 관리하기
- 장례식장에서 장례식장 비용 할인을 빌미로 장례식장 자체 의견 이용을 권유하는 꼬임 안 넘어가기
- 장례식장 이용 시 특이사항 있는 장례식장 피하기(자체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제단, 차량, 관, 수의 등)을 필수로 이용해야만 하는 장례식장 전국적으로 많음)

문의
신청

1577-1555
www.daonplan.com

